

<진대방전>에 나타난 이념의 위상과 이본 생성 동인

박 은 정*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태수의 훈계 대목과 이본 생성 |
| II. 진대방전에 드러난 이념과 현실 | 양상 |
| 1. 가족의 균열, 이념과 욕망의 갈등 | IV. 맺음말 |
| 2. 이념의 목소리, 그 공허한 울림 | |

【요 약】

이 논문은 <진대방전>이 강한 교훈성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이본을 가지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그 이유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대방 가정의 문제는 중세적 이념을 고수하려는 어머니와 현실적·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대방 부부 사이의 충돌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그 정점에 이 둘 어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어머니의 내적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실의 문제가 커지니 이념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진다. 그러나 그 이념의 강요가 현실을 살아가는 일상인들에게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가혹한 것이어서 공허한 울림으로 그칠 뿐이다. <진대방전>은 표면적으로는 무너지가는 ‘효’라는 순정의 이념을 일으켜 세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면에서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강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어 당대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태수의 훈계 대목은 재미없고 새로운 게 없는 고사의 인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본 생성의 기제로 작동한다. 그 이유는 이 대목이 ‘고사의 제시를 통한 개별적 훈계’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독자 개입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텍스트에 이견을 가진 독자들은 필사 과정에서 인용 고사의 내용이나 수에 변이를 가하여 다양한 이본을 파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작품에서 제기되고 있는 갈등이나 문제의식들은 현재 우리의 가족에 비추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진대방전>은 여전히 문제적 작품이다.

I. 머리말

<진대방전>은 불효자 대방과 그의 가족이 고을 태수의 훈계를 듣고 개과천선한다는 즐거움을 가진 작품이다. 이처럼 <진대방전>은 사건의 전개가 비교적 단순하고 윤리 교과서를 연상시키는 교훈적인 내용의 고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설적 형상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진대방전>에 대한 이른 시기의 연구는 대개 작품의 송사적 성격과 교훈적 성격이 가지는 단순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대방의 어머니가 대방을 관가에 고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안류’¹⁾ 또는 ‘공안소설’²⁾이라고 분류하였다. 한편에서는 ‘단순한 플롯에다 주제를 표면에 내세워 유치하고 졸렬한 작품이다. 더 이상 감상하거나 비평해 볼 만한 작품이 못 된다’³⁾고 폄하해 버리거나, ‘그 교훈적 성격

1)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188쪽 참조.

2)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248-249쪽 참조.

3)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 384-386쪽 참조.

때문에 신소설기 고대소설을 출간할 때 아예 <윤리소설 진대방전>으로 명명되었다⁴⁾고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와 같은 간단한 작품 분류를 벗어난 심도 있는 연구 결과가 집적되었다. 이현홍⁵⁾의 논의는 ‘공안소설’과 차별되는 ‘송사소설’로서의 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진대방전>에 나타난 사건의 근거가 되는 실제 사건을 추적하고 있어 후대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송성욱⁶⁾은 <진대방전>에서 사건보다는 태수의 역할과 그의 교훈이 중요하며, 그 교훈적인 내용 때문에 부녀자들에게 교훈서로 읽히면서 많은 독자를 확보했다고 하였다. 이현국⁷⁾은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조선 후기 심화된 가부장적 가족 질서나 윤리의 붕괴상과 연관지어 사건을 논의하고 있어서 사회사적 접근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태문⁸⁾의 연구에서는 『내훈』과의 상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통해 <진대방전>이 <내훈>과 같은 수신서의 기능을 대신하는 독서물로 읽혔다고 하였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조재현⁹⁾의 석사논문에서 이루어졌는데, <진대방전> 중 특이한 제목을 가진 <임시각전>과 <정대광사적>¹⁰⁾을 검토하면서 <정대광사적>을 <진대방

4)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66, 287쪽 참조.

5) 이현홍, 『한국송사소설연구』, 삼지원, 1997, 69-71쪽 참조.

6) 송성욱, 「<진대방전> 연구」, 『공사논문집』, 35, 1994, 9.

7) 이현국, 「<진대방전>의 전반적 성격」, 『연거재신동익박사 정년기념논총 국어국문학연구』, 1995.

8) 이태문, 「윤리의식의 중세적 형상화-<진대방전>을 중심으로」, 『연세학술논집』 27, 1995.

9) 조재현, 「<진대방전>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1998.

10) 조재현이 언급하고 있는 <정대광사적>은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43 (월촌문헌연구소 편)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정대광이사적권지초라>라는 작품을 편의상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정대광사적>이 아니라 <정대방사적>으로 읽어야 한다. 필사본전집의 목차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연구자가 주의 깊게 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는 분명 <정대방사적>

전>의 최고본으로 보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¹¹⁾이 있지만, 구조 분석과 주제 고찰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기반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통해 <진대방전>의 특징적인 면면들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본다. 하지만 <진대방전>의 이본이 그토록 많은 데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해석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본고의 논의는 여기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진대방전>은 그 이본이 아주 많은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한국 고전소설 목록에 올라 있는 작품 총수는 858종이다.¹²⁾ 이 중 이본 총수가 50종 이상인 작품이 모두 36편인데, <진대방전>은 그 이본이 113종(국문 필사본 93, 국문 목판본 11, 국문 활자본 8, 한문 필사본 1)으로 15번째로 많은 이본을 가지고 있다.¹³⁾ 그 앞에 있는 작품들

의 오독이다. 결과적으로 주인공은 진대방과 성만 다르지 이름은 같다.

- 11) 조재현은 <정대광사적>이 사건의 기록에 가까운 평면적인 서술을 하고 있고 후일담 부분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진대방전>의 최고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대광사적>은 후일담 부분을 제외하면 자신의 논의에서 주텍스트로 삼았던 나손본 62-4와 거의 유사하다. 후일담 부분의 차이라는 것도 최고본을 논의할 정도의 차별성을 지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정황들로 미루어 보아 <진대방전>의 이본간 선후관계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 12)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참조. 우쾌제, 「고소설 명칭 및 총량의 통계적 고찰」(한국고소설연구회 편,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3.)에서 작성한 목록에는 1273종의 소설 이름이 올라 있는데, 작품의 실상을 조사해 작업을 다시 정밀하게 한 결과 그 수가 858종으로 줄어들었다.
- 13)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지식산업사, 2001, 119-127쪽 참조. 참고로 이본 분량이 많은 상위 순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춘향전>, <조웅전>, <구운몽>, <유충렬전>, <심청전>,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화용도>, <소대성전>, <숙영낭자전>, <박씨전>, <토끼전>, <임진록>, <삼국지> 순이다.

의 명성을 생각해 볼 때 다소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상당히 많은 독자들이 <진대방전>을 읽었다는 얘기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만큼 많이 필사되고 읽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진대방전>에 대한 논의는 결국 ‘많이 읽혔다’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왜’ 많이 읽혔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교훈적 성격을 띤 교화의 수단으로 보급되고 읽혔을 것이라는 것이 선행 연구의 주된 견해이다. <진대방전>이 표방하고 있는 교훈적 의도가 작품의 유통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교훈성만으로 그 많은 이본과 독자를 설명해 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모든 독자들이 작품이 주는 교훈성 때문에 <진대방전>을 읽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대방전>에 수록된 교훈적인 내용, 특히 태수 훈계 대목에 인용된 고사의 내용은 이미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편지글을 모아 놓은 <정보연간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요스이는 적이 틈이 업스오나 긴긴 밤의 칙이나 보고저 호오더 너훈이라 호는 칙은 오륜형실의 잇스오니 보아 더 신기호 것 업스오며 진대방전이라 호읍는 칙은 디방 슈죄호은 말이 너머 호변만 호읍고 별노 신기호은 칙 어더 불 슈 업스오니 덕의 무스 칙 잇습거든 벌이시읍소서¹⁴⁾

위의 편지글을 통해 <진대방전>이 <내훈>과 함께 부녀자들 사이에서 많이 읽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대 독자들이 <진대방전>을 별로 신기한 것이 없는, 한마디로 재미없는 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진대방전>은 <내훈>이나 <열녀전>에 나오는 고사들을 상당수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가

14) <정보연간독> 하, 장 19, 남남기리 호는 것.

말하는 ‘재미없다’의 핵심은 바로 자신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재확인시켜 주는 태수의 장황한 훈계 대목이다.

그렇다면 재미없고, 새로울 게 없는 훈계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주요인은 무엇이었으며, <진대방전>이 가진 어떤 문제의식이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을 읽고 필사하게 하고, 그 결과 이본을 파생하게 했는가. 이 질문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곧, 그토록 많은 이본을 가진 <진대방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진대방전>에는 교훈이나 윤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실적 역학관계가 분명 존재하고, 그런 부분들이 독자들의 향유 과정에 섬세하게 작용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진대방전>은 그 내용이 교훈적이긴 하나 이미 소설 담론 속에서 형성된 작품이지 교훈 서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진대방전>에서 그려지고 있는 서사의 발단과 거기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양상이 조선 후기 가정과 사회의 현실태를 심각하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진대방전>에는 중세적인 이념이 요구하는 가정 또는 사회의 모습과는 괴리되는 경험적 현실이 거칠게 묘사되고 있어, 이념보다는 현실 문제에 더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독자들의 시선을 끌어들이고 있다. 둘째,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건을 일장 훈계로 잠재워버리는 태수의 훈계 대목에 대해, 독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개입하여 미세하게 차별화되는 다수의 이본을 파생시킨다는 것이다. 작품의 고찰을 통해 이런 전제를 확인해 보고 그 의미를 짚어보려고 한다.

논의의 주텍스트는 경판 36장본¹⁵⁾으로 한다. 방각본은 고소설이 실

15) 김동욱 편, 『경인 고소설판각본전집』. 경판 36장본은 <내훈>과 <내훈제사>가 합철되어 있어 실제 <진대방전> 장수는 18장이다.

제로 창작·수용되던 당대의 출판물로서, 조선 후기에 많은 독자를 확보했던 작품이 판각·출판된 것이므로 방각본을 저본으로 한 고소설 연구는 당대의 실상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¹⁶⁾ 그 외 선행 연구에서 특징적 이본으로 언급되었던 몇몇 작품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논의를 전개시키려 한다.

II. <진대방전>에 드러난 이념과 현실

<진대방전>의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ㄱ. 아버지를 일찍 여윈 대방은 배운 바 없어 방탕한 생활을 한다.
- ㄴ. 대방이 양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녀 역시 간특한 인물이다.
- ㄷ. 대방 부부와 따로 살게 된 어머니가 대방 집을 찾아가 양녀를 훈계하나 듣지 않는다.
- ㄹ. 참다못한 어머니가 대방 부부를 관에 고발한다.
- ㅁ. 고을 태수가 훌륭한 어머니를 예로 들며 대방 어머니를 훈계한다.
- ㅂ. 형제간 우애를 강조한 고사를 들어 대방 아우를 훈계한다.
- ㅅ. 훌륭한 아내, 며느리의 본분을 다한 고사를 들어 양녀를 훈계한다.
- ㅇ. 효성이 지극한 인물을 예로 들며 대방을 훈계한다.
- ㅈ. 가족 모두 태수의 훈계에 감동하여 개과천선한다.
- ㅊ. 대방의 마을은 효자촌이 되고 대방은 강능태수가 되어 백성들을 교화로 다스린다.

줄거리는 전개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대방의 불효

16) 조혜란, 「경관 방각본 소설의 특성」,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4, 306쪽.

를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대방을 관가에 고발하기까지의 사건 발단 부분(ㄱ-ㄷ), 고을 태수가 각종 고사를 들어 대방 가족을 훈계하는 부분(ㄱ-ㅇ), 훈계를 듣고 감동하여 개과한 뒤 대방 가족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는 후일담 부분(ㅈ-ㅊ)이 그것이다.

본 장에서는 사건 발단 부분에 드러난 가족 균열의 원인과 양상, 그리고 훈계 및 후일담 부분에서 강조되는 이념의 비현실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진대방전>의 교훈성 이면에 드러난 조선 후기의 사회사적 함의를 읽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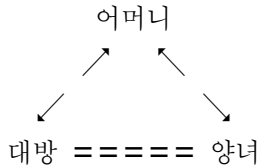
1. 가족의 균열, 이념과 욕망의 갈등

첫째 부분은 진대방 가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방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타고난 기질도 방탕하고 가르침도 부족하여 주색에 탐닉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인물이다. 어머니는 이런 대방이 늘 못마땅하다. 양녀를 아내로 맞이하나 그녀 역시 간악하여 대방의 교화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 훈계하지만 듣지 않고 대방은 아내와 작당하여 어머니와 동생을 내쫓는다. 하루는 억울하게 여긴 어머니가 대방을 찾아갔더니 아들은 없고 며느리만 있다. 며느리를 불러 훈계했더니 듣지 않아 분개하며 돌아온다. 양녀가 울고 있자 나갔다 돌아온 대방이 양녀에게 그 연유를 묻고, 양녀는 시어머니가 자기를 나무라며 관에 고하여 죽이려 한다고 말한다. 화난 대방이 어머니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참다못한 어머니가 아들을 관에 고발하기에 이른다.’

불효한 아들, 그리고 한술 더 뜨다고 여겨지는 며느리, 그리고 자식들을 관에 고발한 어머니, 현대 TV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상황이다. <진대방전>이 쓰여지고 읽혀졌을 ‘그때 당시’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건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에 어느 정도 근거하고 있는 것¹⁷⁾이라 하더라도 문제적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효를 윤리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정서적 전통을 생각해 봤을 때 매우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교훈적 내용에 식상한 독자들에게는 ‘재미없다’의 핵심인 훈계 부분과 달리 참신한 대목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진대방 가정의 균열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 관계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불효자 진대방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 작품 전체 맥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이 대방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방의 가족 구성원은 대방, 아내, 어머니, 동생 모두 네 명인데, 태수의 훈계가 이 네 명에게 공히 하달된다는 데서도 그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동생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궁극적으로 갈등의 핵심 인물은 대방과 아내 양녀, 그리고 대방 어머니, 이 세 사람이다. 삼각 구도를 이루는 이들 갈등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이 세 인물 사이의 관계는 각각 모자 관계, 부부 관계, 고부 관계이다. 이 중 모자 관계와 고부 관계는 갈등 관계이고, 부부 관계는 그렇지

17) 이현홍, 앞의 책, 70-71쪽 참조. <목민심서>에는 <진대방전>의 제재적 근원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7종 수록되어 있다. 이 설화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소설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당시 향간에 떠돌던 유사한 실사 및 설화들도 작품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에서 모자 갈등과 고부 갈등은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 작품에서의 갈등은 더욱 문제적이다.

먼저 대방과 어머니, 이 모자 관계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줄곧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는 어머니가 대방을 불러 앉히고 훈계를 한다.

일〃은 그 어미 대방 불너 안치고 경계 왈 네 부친은 업고 어미와 동성이 〃시니 조업을 직회여 날치 말고 집을 보존회여 향화를 극진이 밧드러 구턴의 도라간 으비 혼빱을 위로회미 인즈의 도리의 울켜놀 이제 너는 이를 생각지 아니회고 날마다 주식과 노름을 조와회여 몸이 죽을 곳의 썬지되 맛춤너 썬닷지 못회고 어미 설위회는 줄 아지 못회니 엇지 슬푸지 아니회리오 회고 대방의 손을 잡고 통곡회니 대방이 〃윽히 안즈 듯기를 괴로이 회다기 물너 간 후로 조금도 기과회는 빗치 업는지라¹⁸⁾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집안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나도는 아들이 못마땅한 어머니는 대방에게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고 하지만 대방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그 책임을 원치 않는 듯하다. 다음은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 다녀간 뒤 아내의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난 대방이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간 대목이다.

대방이 〃 말을 듯고 분기를 참지 못회여 말을 달여 순식간의 어미집의 당도회여 세간을 부시며 무죄회 제 동성을 밧질회며 회는 말리 다 갖튼 즈식이언마는 동성만 사랑회고 날갓튼 놈은 미워회기로 도망회여 나가사는 것슬 질지심이 방회를 부리여 처즈식가지 못살게 회니 세상의 일어회 인심이 어더 잇스리요 남이야 웃지 모지간 형제간 잇스리요 회며 포악이 자심회거늘¹⁹⁾

18) <진대방전>, 『경인 고소설판각본전집』 3, 201쪽.

19) <진대방전 단>, 『나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62, 362쪽.

이런 경우, 모자, 고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당시 윤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대방의 행위는 용인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결과 대방은 불효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행실이 나쁜 인물로 묘사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방 가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방과 그 어머니 사이의 가치관과 행동방식의 괴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선악의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세적 이념을 고수하려는 어머니와 현실 변화에 충실하려는 대방의 갈등 양상을 감안할 때, 악행으로 규정지어진 대방의 행동은 변호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양녀와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양녀에게 며느리의 잘못을 나무라지만 양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커녕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대든다.

양네 그 말을 듯고 심중의 불쾌이 녀여 왈, 부모의 말도 듯지 아니흐거 든 엇지 계집의 말을 드르리잇가 나도 본근 잘못 상긴 사름으로 빙혼 형실이 업는 고로 지아비를 가르치지 못흐여시니 저를 보고 꾸짖거나 치거나 흐실 거시어늘 엇지 날드려 과칙흐시는니잇가 흐고 노귀 대발흐 거늘 그 어미 홀일업서 크게 울고 도라오니라²¹⁾

시어머니가 지아비를 착하게 하여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라고 가르치자 양녀는 ‘시어머니도 어찌 하지 못한 아들을 내가 어찌 하겠느냐’며 도리어 화를 낸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울며 돌아간다. 보기 드문 양상의 고부 갈등이다. 악한 인물들은 대개 자신의 악함을 숨기고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 데 반해 양녀는 너무나 당당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부 관계에서 며느리는 일방적 약자인 데 비해 양녀는 시어머니와 팽팽한 대결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는 이 시어머니

21) <진대방전>, 앞의 책, 201쪽.

가 자기 자식조차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에게 큰소리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방에게 어머니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남편과 자식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을 공고히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어머니보다 양녀가 한 수 우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양녀의 경우는 시어머니가 대방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부부관계인 대방과 양녀, 대방이 주색에 탐닉하고 양녀가 간활하다고 서술되고 있지만 이 두 사람 내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은 양녀가 시어머니의 훈계를 다소 왜곡하면서까지 신세 한탄을 늘어놓자, 대방은 아내의 말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어머니에게 달려간다. 왜 내 아내와 자식을 구박하느냐는 것이다. 대방이 양녀를 대하는 태도나 목소리는 상당 정도 애정과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들이 기존의 공적 질서를 거부하고 사적 욕망에 충실한 인물들로서, 이들의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갈등의 삼각 구도에서 문제는 바로 대방의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그 대외적인 지위도 흔들릴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고민하는 인물이다. 어머니는 대방이 어려서부터 대방에게 가장의 역할을 요구하지만, 대방은 그 역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이 가정의 실질적 가장은 대방의 어머니일 수도 있다. 고전소설 전통에서 봐도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 어머니는 아버지 못지않은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한다. 흔히 혼암한 아버지가 등장하기는 해도, 홀로 남은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 가지는 지배적 위치는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 가부장제의 특성상, 조선조 여성이 그 영역을 보장받는 유일한 지위는 어머니이기 때문이다.²²⁾ 훌륭한 아들을 길러내고 존장자로서 효도를 받고 며

22) 당시 여성이 '자발적'으로 부권 사회에 충성을 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느리를 지배하며 손주를 품안에 거느리는 여가장으로서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대방의 어머니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대가족 내에서 연장자, 혈통계승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권위를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봉건적 이념에 충실한 것 같지만 그런 이념을 고수할 의지도 힘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면의 욕망에 충실할 만큼 획기적이지도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진대방전>에서 가장의 대리인인 어머니의 목소리는 대방과 며느리에게 공허한 울림일 뿐이다. 가족 관계의 공적 질서가 흔들리고 절대적 효의 가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대방의 어머니는 확고하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방의 어머니가 이와 같이 된 데는 경제적·물질적 욕망이 한편에 자리하고 있다. 대방 가족의 갈등에 물질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어머니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기 뵈 더욱 익달나 다시 닐너 왈 이제 우리 가산이 점 ” 탕뵈흐니 너는

는 여성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었고, 행실 범절을 통해 또는 집안 살림을 일구어 놓음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남편의 집에 편입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던 젊은 여성은 점차 자신이 낳은 ‘핏줄’을 이 집안에 더해감으로써 자신의 세력권을 구축해간다. 자궁 가족 내에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며느리가 포함되며 남편은 별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 특히 조선시대는 ‘효’를 절대 가치화하였으며 이 조항에 있어서는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였다. <…> 상층에서는 과거 급제자 아들을 길러내는 어머니로서의 명예와 보상이 있었고, 그러한 출세를 기대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집에서도 아들이 장성할수록 존장자로서 효도를 받고 며느리를 지배하며 손주를 품안에 거느리는 여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78-80쪽 참조.)

모로미 믿음을 곳치라²³⁾

네 이제 간악한 말노 무도한 지아비를 달니여 모즈의 정을 끈츠며 형데 불목게 호고 너의만 음식이며 의복을 사치호니 엇지 사람이라 니르리오²⁴⁾

스람이 점 " 즈라미 세상 물욕의 교폐호야 텃성은 점 " 스라지고 스십 이 조희의 물 젓듯 점 " 밍동호야 숨강오륜은 문허바리고 세간 탐욕의 계관호 비 되야 멸신망가홀 경우의 싸져 우준한 필뵈 되니 등잔불의 빛 나는 나뵈와 우물의 드는 적즈긔치 분주히 화단으로 즈양호고 본심을 본성으로 회복홀 줄을 모르니 엇지 한심코 익뵈지 아니리오²⁵⁾

타고난 천성을 사라지게 하고 삼강오륜을 무너뜨리는 것 가운데 중요한 요인이 물욕이다. 이후 태수의 훈계에서도 물욕에 대한 경계는 자주 언급되며 물욕이 천성을 상하게 한다고 역설한다. 대방의 어머니는 대방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도 불만이지만, 그보다 현실적으로 재산을 함부로 쓰고 자기 가족들만 배불리 먹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윤리관 변화의 핵심은 경제 관념이다. 어찌 보면 대방의 어머니는 변화하는 세대를 따르고 싶은 욕망과 윤리적 이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순적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대방과 양녀는 전혀 갈등하지 않는다. 이념보다는 내면이 시키는 욕망에 충실한 대방과 양녀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어머니의 경우 이 두 가지가 동떨어져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공적 윤리에만 충실한 인고의 어머니이면 사건은 의외로 단순해질 수 있는데, 대방 어머니는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물질적 욕망을 외면하고 윤리를 강조하면 차라리 어머니로서의 위엄이나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어머니 역시 어쩔 수 없이 변화된 사회 상황에 동요되고 있

23) <진대방전>, 앞의 책, 201쪽.

24) <진대방전>, 앞의 책, 201쪽.

25) 구활자본 <진대방전>, 185-186쪽.

다. 전통적 윤리 질서를 생각해 볼 때,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아들도 그렇지만, 문제를 공식화시켜 아들을 관가에 고발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익숙지는 않다. 당시 사회적 변동과 관련해 보면, 진대방 가정의 문제는 대방의 불효에 기인한다기보다 가족 구성원들의 욕망과 당대가 강요하는 이념이 충돌하는 데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 갈등 관계의 핵심에 어머니가 서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현실주의에 기반한 개인주의적 물질적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진대방전>은 사건 발단 부분에서 물질적, 현실적 욕망이 윤리 규범을 압도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가족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현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최소한 발단에서만은 이 사건이 가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념적 착색이나 재구성 없이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태수의 훈계라는 공적인 목소리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이미 심각해진 상황이 독자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진대방전>의 문제의식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일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 또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대단히 유효한 것이다. 고전소설의 생명력은 당대적 의미로서뿐만 아니라 현재의 독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고 볼 때, <진대방전>은 깊이 살펴볼 가치가 있는 작품임에 틀림없다.

2. 이념의 목소리, 그 공허한 울림

<진대방전>은 발단 부분에서 조선 후기 가족 갈등의 한 단면을 통해 당시 변화하는 가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한 가정에 다소 국한된 문제이다. 그러나 훈계 및 후일담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좀더 나아가 사회적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문제도 다루어지고 있다. 가정 문제만큼 표면적으로 제시되지 않지만 작품 전개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상례와 관련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작품이 표방하는 것은 ‘효’인데, 그 실천 방안 중에서 상례의 도리는 거듭 강조된다. 태수가 훈계 부분에서 그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방의 후일담 부분에서도 상례의 도리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훈계 고사에 등장하는 효자, 효부들은 하나같이 부모의 삼년상을 극진히 한다. 대방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고을 태수의 삼년상까지도 정성껏 치른다. 그리고 이본에 따라서 대방의 자식이 대방과 양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삼년상을 치르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조카가 자신을 구해준 삼촌의 거상을 정성껏 치르는 내용을 다룬 인용 고사도 있다.

다음 예문은 상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효행이 지극하여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감지 못한 고로 부모 죽은 후 삼년 거상하여 그 몸이 맞도록 은혜를 감고져 흠이니 또 거상한 도리를 드르라 잊지 슬푸지 아니하리오 부모의(의) 충상을 당하면 천지 문어진 듯하고 오장육부 다 찌여진 듯한지라 그 망극함이 엇더타 하리오 더기 그 초혼 후 울게 흠은 혹 회심하실가 조심함이오 초종지에는 사람의 가세더로 극진하디 만연 유택을 후회 업게 하며 상인의 의복을 최복이라 하기는 그 최통한 막음을 표함이오 계복 압히 최 붓치고 뒤에 부관과 우의숙질을 더하기는 부모 은혜를 알고지고 잠시도 그 이통한 마음을 잊지 말과져 흠이오 더기 상장 잇통 중 디력이 쇠진하미 몸을 의지하고져 흠이오 부 상장은 더로하기는 그 은혜 두렷하고 절치 이시물 표함이오 어미 상장은 오동으로 모지게 하기는 어미 은혜 또한 아버와 갖하디 그 은혜 모이시물 표함이오 삼년 거상하기는 즈식이 부모 품의 세 술 먹은 후의야 면한 연피오 방님을 울게 하거늘 천지간의 부모 일흔 죄인이라 하날을 보지 못하게 하미오 또 쓰흠 날히여 장승하기는 만연유택의 평안코져 흠이라²⁶⁾

26) <임시각전 권지단>, 『김광순소장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32, 경인문화사, 1994, 430-432쪽.

이 지점에서 <진대방전>의 창작 의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조선 개국 이래 줄곧 강조되어왔던 사상들이 교훈의 형태로는 한계를 가지니까, 교훈성이라는 이름으로 효용을 인정받게 된 소설의 외피를 입고 윤리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시대 소설이 심미적 기능보다는 유가적 문학관에 근거한 도덕적 기능으로 그 위치를 다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 후기의 도덕적 효용론은 주로 권선징악을 통한 세교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었던 소설이 그 효용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소설은 다른 어떠한 장르보다 감응력이 크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소설을 통한 교훈이라는 효용론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²⁷⁾ 특히 규방의 여성들이 소설을 많이 읽게 되자 이제 여성들에게 유익한 소설이 창작되어 소설을 통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²⁸⁾ 상례는 강조되고 강요되었지만 쉽사리 정착하지 못했던 의례인 만큼, 그 교육 내용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주자가례에 의한 가묘의 건립과 삼년상의 실시는 조선 초기부터 정책적으로 강조되었다. 가묘와 사당을 집 울타리 안에 건립하는 것은 절에서 주관하던 제례를 집 안에서 실시하게 한 것이다. 제례는 가묘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대상과 몇 대까지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신분에 따라 제사를 지내야 하는 대수에 차이가 있던 규정이 세종대에 와서는 4대 봉사로 규정되어 『경국대전』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사대부층에서 시행하는 데도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서민층에서는 제대로 실시될 수 없었다.

다음으로 국가가 중요시한 것이 바로 삼년상제였다. 이것은 그 절차

27) 김경미, 『소설의 매혹』, 월인, 2003, 256-261쪽 참조.

28)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학교학연구원, 1988, 117쪽 참조.

와 내용이 복잡하여 가묘제처럼 간단히 시행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묘제보다는 덜 강제적이었다. 삼년상제도 사대부와 일반 서민층에 다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일반인들에게는 기존의 백일상을 그대로 시행토록 하였다. 가묘제와 삼년상제는 사대부층에만 실시케 강제하였으나 사실상 태조 및 태종조에는 그 시행을 강력히 추진할 수 없었으며 극히 일부 정도만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세종조에 이르러 유교의 지배 이념이 자리 잡으면서 불교사원 중심의 상제 의례가 약화되고 가묘 설립이 양반층에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세종 9년 가묘설립법을 제정하여 수년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갔다.

그러나 주자가례에 의한 의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는 오랫동안 많은 혼란과 정책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세종조에는 국가에서 『장일통요(葬日通要)』라는 책을 만들어 반포하고 관리들로 하여금 장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규찰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학자들은 주자가례에 의한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가례서를 저술하여 보급하였다. 이것은 중국 종법에 기초한 것으로 효를 강조하며 가문의 통합을 이룩하려는 제례서의 성격을 띠었으나 사실상 주자가례의 시행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현실성이 없었다. 조선 후기에 가면 사대부층 외에 상인이나 부농들이 유교적 교화뿐만 아니라 신분 상승을 위한 경제적 과시로 주자가례에 따른 의례들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을 볼 수 있다.²⁹⁾

그런데 문제는 늘, 숭고한 이념이 현실에 제대로 발을 내리지 못하고 허공에서 맴돈다는 데 있다. 국가 시책으로 강조되던 제례 및 삼년상은 일상인들에게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의식이었다. 상례를 치르는 데는 일정 정도의 경제적 여건이 필요하고,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은 일상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몹시 부유한 일부 사대부들을 제외한 많은 양반과

29) 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41-42쪽 참조.

상민들이 상례의 이 엄청난 무게를 견뎌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강조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해내기 힘든 것이었기에 소설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재차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가정 내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것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런 점에서 앞서 살펴본 세대의 실상과 이 부분에 나타난 선명한 윤리적 색채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둘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념의 목소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관념적인가 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진대방전> 이본에서 초상 절차와 삼년상 절차를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런 훈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은 동시대의 다른 소설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많이 읽혔던 <이해룡전>³⁰⁾은 가난한 이해룡 부부의 이야기이다. ‘해룡은 부친이 일찍 돌아가시고 모친만을 모시고 있었는데, 집이 몹시 가난하여 부인 심씨가 침선방적으로, 그러다 안 되면 결식으로 연명하며 모친을 봉양했다. 해룡은 서책을 던지고 지게 지고 산에 가 나무를 해 와서 모친 방에 불을 넣었다. 그러다 모친이 돌아가시자 장례 치를 돈이 없어 신분을 속이고 남의 집 시비로 들어가게 된다. 아내의 몸 판 돈으로 먼저 돌아온 해룡은 모친의 장례를 치르고, 우여곡절 끝에 사연을 알게 된 주인이 해룡 부부의 효성을 칭찬하고 모친의 삼년상을 마치게 도와준다. 나라에서는 효성을 치하하고 벼슬을 내렸다.’

이처럼 <이해룡전>은 장례 치를 돈이 없어 몸을 팔아 그 돈으로 장례와 삼년상을 치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런 소재가 소설화된다

30) 영남대본 <진대방전>에는 뒤에 <권선중약가>와 <남산동이진사효행록이라>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남산동이진사효행록이라>는 <이해룡전>의 한 이본이어서, 당시의 독자들이 이런 세태를 다룬 소설들을 비슷한 맥락에서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는 것은 이런 일이 당시 흔히 있었던 일이며, 그런 만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반의 경우, 돈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복잡하고 형식적인 상례 절차는 양반을 버릴 만큼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해룡전>의 표면적인 주제는 <진대방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효를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하고, 기존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효의 논리에 순응했다니 좋은 일이 있더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룡 부부가 엮어내는 삶의 질곡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이지 이쯤 되면 이념의 무게는 억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해룡 부부가 그 현실을 감내하는 과정을 통해 효의 정점을 그리고 있는 <이해룡전>은, 오히려 그 이면에서 이념의 강요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윤리의 요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그리고 당대 현실과 얼마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해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대의 독자들에게 <진대방전>의 교훈이 생동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한다. <진대방전>에서 그토록 지루하게 강조되던 윤리적 이념이 그 실천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을 <이해룡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빛바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어쩌면 당대 독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Ⅲ. 태수의 훈계 대목과 이본 생성 양상

대방 가정의 문제적 상황, 태수의 훈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대방 가족의 뒷이야기이다. 다소 도발적인 문제 상황을 가지고 출발했던 <진대방전>은 너무나 구태의연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대방 가정의 문제는 태수가 자신의 부덕을 탓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그

러나 태수는 일장 훈계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잠재워 버린다. 태수의 훈계가 끝나면 등장인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성하고 착한 인물로 돌변한다.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도, 시어머니에게 대들던 며느리도 아무런 반발 없이 한순간 뉘우치고 통한의 눈물을 흘린다.

대방이 엮디여 티슈의 이 말을 듯고 네 사름이 일시의 니러나 머리를 두다리고 빅 변 샐레흐며 통곡흐여 졸오더 죄인이 실노 무지흐여 삼강과 오륜을 아지 못흐고 이러툃 관청의 드러와 강상의 죄를 범흐여시니 이제 죄인의 몸을 만단의 너여 불효흔 죄를 당케 흐소서 흐고 사인이 서로 붓들고 슬픈 눈물을 금단치 못흐니 (중략) 대방이 더욱 돈슈 샐레 왈 이제 하늘 갓흔 은혜를 나리오샤 죽일 죄를 샐레시고 인뉴의 춤네게 흐시니 빅골이 진퇴흐나 엇지 니즈리잇고 흐고 집의 도라와 네 사름이 서로 보고 어린 듯 취흔 듯 붓그리물 먹음어 서로 죄를 니르고 즈모 형데 혼 집의 거흐여 살미 대방은 그 어미를 지효로 섬기고 형데 우의 극진흐며 양녀는 식모 섬기를 지효로 흐고 가군 섬기를 극진이 흐여 일개 화목흐고 가행이 날노 점 ” 다스리니 일문이 크게 흥흔지라31)

과연 가르침을 듣지 못하여 악하던 사람이 가르침을 듣고 보니 한순간에 반성이 되던 것인가. 리얼리티에 충실한 발단에 비하면 싱겁기 짝이 없는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서사적 반전도 없고, 태수의 훈계 이외에는 별다른 개과의 계기도 없다. 물론 태수의 가르침은 이상적인 목민관의 모습을 보여준다. 별하지 않고 백성을 교화하는 것만큼 훌륭한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작품의 의도가 교훈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진대방전>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설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진대방전>을 윤리소설 또는 도덕소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31) <진대방전>, 앞의 책, 209쪽.

<진대방전>이 많은 양의 이본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런 교훈적 성격 때문에 그토록 많이 읽혔고 많은 이본을 파생시켰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교훈성 때문에 많이 읽혔다는 것은, 재미없지만 교훈적이기 때문에 읽게 하고 또 읽었다는 것인데, 물론 이런 목적으로 필사되고 보급되었을 가능성은 당연히 충분하다.³²⁾ 하지만 그런 면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대부분의 독자들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것이 이 대목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태수 훈계 대목의 어떤 특성이, 어떤 방식으로, 그토록 많은 이본의 생성에 작용했을까. <진대방전>은 사건의 발단 부분에서 이념과 욕망이 충돌하면서 벌어진 가족 갈등의 한 단면을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다. 문제는, 균열의 상태는 심각한데 그 처방은 너무나 단순하고 봉합은 쉽게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태수의 훈계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진정제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실상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등장인물 중 어느 누구도 태수의 훈계에 저항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사실 작중 인물 중 어느 누군가가 태수의 훈계에 반기를 든다면 <진대방전>이 제기하는 교육의 문제는 그 위신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또는 다른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 독자들이 작품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태수의 훈계 내부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태수의 훈계는 가족 구성원들을 차례대로 불러 앉혀 놓고 각종 고사를 들어가며 각각의 잘못을 지적하는 형식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방 가정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입장에서 달리 이해될 수 있고, 특히 여성 독자들에게는 상당한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안

32) 송성욱, 앞의 논문, 459-461쪽.

이다. 독자들은 기본적으로 훈계와 개과의 상황은 인정하고 들어가지만, 그 훈계의 목소리가 누구를 더 질책하는가 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사건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독자들은 며느리나 시어머니, 때때로 어머니나 아들, 아니면 형이거나 동생이라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자들의 이견은 적극적 필사자에 의해 고사의 추가 또는 삭제의 방식으로 작품에 반영된다. 대다수의 이본에서, 태수의 훈계 대목에 인용된 고사의 내용과 수는 이본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³³⁾ 그런데 고사의 내용과 수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본들이 있어서 주목을 끄는데, 그 예로 <임시각전>³⁴⁾과 영남대본 <진대방전>을 들 수 있다.

<임시각전>은 인용 고사의 수에 있어서, 양녀에 대한 고사가 다소 많긴 하지만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대개 양녀에 대한 고사는 착한 며느리나 아내의 도리를 다한 사람의 예를 들어 그와 같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임시각전>에서는 악한 여성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아 자식들이 그 벌을 받거나 결국에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고사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대방이나 어머니, 동생,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으로 그 죄를 벌하

33) 조재현, 앞의 논문, 79쪽. 인물에 따라 삽입된 고사의 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방 모친 8-10, 대원 4-5, 양씨 10-12, 대방 15-20. 대다수의 이본에서 인용 고사의 수가 이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고사의 수가 확연히 차이 나는 이본들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다 하겠다.

34) <임시각전>은 <진대방전>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주인공 이름(대방은 '임시각', 태수는 '원인의')의 변화, 인용 고사의 성격이나 수의 차이, 후일담 부분의 변이 등으로 미루어 보아 나름대로 개작 의지를 가진 적극적인 필사자에 의해 생성된 이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는 고사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성, 특히 며느리에게만은 개과의 기회가 허용되지 않고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임시각전> 후반부에 등장한 도적들을 끊임없이 교화하여 개과의 길로 이끄는 것과도 상당히 대조적이다. 태수 교화의 기본 방침은 악한 백성이라도 형벌을 가하지 않고 간곡한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며느리에게만은 예외 없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교화의 잣대가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됨을 말한다. 물론 그 대상은 여성이다. 게다가 다른 이본에 비해, 지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는 고사가 강화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임시각전>에서는 며느리에게 강요되는 윤리의 정도가 좀더 가혹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한편 임시각 훈계의 경우도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방의 훈계에 언급되는 고사는 대부분이 ‘효’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임시각전>에는 ‘효’를 강조하는 고사에 앞서 ‘충’을 중시하는 고사가 4개나 인용되어 있다. 임금을 대신해 죽는다거나, 임금의 자손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서슴없이 버리는 등의 이야기들이 다소 길게, 그리고 비교적 완결된 형태로 제시된다. 사실 <임시각전>의 사건 발단 부분은 <진대방전>과 똑같다. <임시각전> 역시 가정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불효자’ 대방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충’의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줄거리 전개와 관련 없이 필사자가 자신의 가치관을 투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임시각전>은 <진대방전>의 다른 이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중심적인 시각을 고수하는 이본이라 볼 수 있다. 어쩌면 남성 필사자에 의한 이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남성적 시각에 경도된 필사자의 사고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본은 영남대본 <진대방전>이다. 앞서 <임시각전>의 경우, 양녀에 대한 고사가 내용에 있어서 극단적이고 그 수도

많았던 것에 비해, 영남대본은 양녀에 대한 훈계 고사가 하나뿐이다. 고사에 앞서 사건과 직접 관련된 양녀의 죄 다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대목은 일정 정도 납득할 만한 것이다. 그 뒤 이어지는 고사는 형제 불화를 화해시키는 이야기로, 일반적으로는 대방 아우에게 인용되는 고사이다. 양녀에 대한 고사의 수가 대개 10개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그 분량이 대폭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이본에서 며느리의 시부모 봉양 고사가 장황하게 나열되는 것에 반해 시부모 봉양 고사는 단 하나도 없다. 이 정도의 차이라면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필사자의 생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의도적인 탈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 독자들은 『내훈』이나 『열녀전』과 같은 수신서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가르침을 소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 홀로 남아 자신의 허벅지살을 빼어 시부모를 봉양했다거나, 먹을 것이 부족한 가난한 상황에서 시부모님 봉양을 위해 자식을 죽이려 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에 과연 가슴 깊이 공감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이 정도의 효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해 더러는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한 반감을 가진 독자들이 이 대목을 대폭 삭제하는 것으로써 의식의 지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임시각전>이 상대적으로 남성중심적인 이본이라면 영남대본은 여성의 정서에 더 부합하는 이본³⁵⁾이라 하겠다.

35) 일반적으로 <진대방전> 뒤에는 『내훈』이 합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영남대본 <진대방전>에는 <권선중약가>와 <남산동이진사효행록이라>라는 소설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남산동이진사효행록이라>는 2장에서 언급했던 <이해룡전>의 이본이고 <권선중약가>는 <복선화음가>의 이본이다. <복선화음가>는 시부모 봉양이 중심이었던 전형 계녀가에 비해 비교적 여성중심적 텍스트(<복선화음가> 며느리의 형상은 동시대 사대부 남성들이 이상으로 제시한 인물 형상과도 다르고 평민 여성들이 시

위와 같은 경우는 독자들이 단순한 필사자로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개작자로서 작품의 향유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가치 판단을 덧붙여 생성된 이본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이본 이외에도 사건에 표면화되지 않았던 문제인 형제간, 동서간 문제³⁶⁾를 강하게 지적하는 이본들도 있다. 독자들마다 태수의 훈계 내용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대개 개인이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우선되는 가치라고

집살이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있는 인물 형상과도 판이하게 다르다. 이는 조선 후기 향촌 사족층 가문의 벽에 부딪친 삶의 조건 속에서 어느 것이 가장 현실적인 타개책일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모색하고 실험해 나온 향촌 사족층 가문 여성의 경험적 현실주의가 탄생시킨 인물형이라 할 수 있다. 성리학적 이념에 강박되어 있는 사대부 남성들에 앞서, 성장하는 평민층의 가치관을 수용하여 ‘제3의 길’을 찾아낸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셈이다. 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족층 여성의 삶과 시집살이 서사-〈망실안 인운씨행장〉, 〈삼한습유〉, 〈북선화음가〉의 경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75-76쪽 참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영남대본 <진대방전>과 비슷한 맥락에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합철된 작품들의 성향이나 주제를 살펴보는 것도 그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영남대본의 경우를 봐도, 필사자들이 필사 과정에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전혀 동떨어진 성향을 가진 작품을 합철하기보다는 비슷한 내용을 가진 작품을 합철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6) ‘형제는 한마음이언마는 형슈와 제슈는 다 각〓 혈육으로 각 집의 자라나셔 의로 좃츠 형이라 아오라 호건니와 승정이 다른지라 특별이 주의치 못호면 의을 상호나니 혼 번 상호면 남남 시이라’ (『나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62, <진대방전 단>, 384-385쪽.) ‘슬푸다 사름이 세상의 처호미 공뫼의 글을 비호지 못호고 다만 물육만 탐호여 효성인지 우인지 아지 못호니 엇지 슬푸지 아니호리오’ (<진대방전>, 앞의 책, 204쪽.) 형제 또는 동서간 불화 역시 물질적 문제가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보는데, 이는 장자상속제 강화 이후 형제간 재산 분쟁이 잦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 문제가 잦아지니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것에 좀더 힘주어 역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임시각전>이나 영남대본 <진대방전>과 같이 차별적인 이본이 있는가 하면, 내용이나 주제에서 큰 변이를 드러낼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차이의 이본들도 많다.³⁷⁾ <진대방전>에 인용된 고사들은 교훈서를 접한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 정도는 접해 본 것들이다. 필사 과정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비슷한 고사를 추가하거나, 잘 모르는 것은 삭제시키는 등의 간단한 방식으로 단순히 고사의 개수만 차이나는 정도의 이본을 파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태수 훈계 대목에 주목하면서도 그 교훈적 내용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이 대목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본 생성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본이 생성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태수 훈계 대목 자체가 ‘고사의 제시를 통한 개별적 훈계’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한 인물에 대한 훈계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마치 판소리의 특징인 ‘장면의 극대화’와 같은 서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³⁸⁾ 그런가 하면 태수의 훈계 대목이 경직되고 폐쇄적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독자들에게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즉 비판의 대상

37) ‘긴 작품을 필사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사자는 저본의 내용 일부를 자신의 가치관 내지 취향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의도적인 개작과 달리 무의식 중에 실수에 의한 개작을 하기도 한다. 이본을 만들어 내지 않겠다는 작정을 하고 필사하지 않는 이상 필사 과정에서 의도적, 비의도적 개작에 의한 이본의 발생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일렬, 『고전소설신론』, 새문사, 1991, 84-85쪽 참조. 고사를 한두 개 추가하거나 탈락시키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긴 하지만 가치관이나 취향의 반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8) 독자 또는 필사자의 개입이 용이하여 어느 한 부분이 극대화되는 방식은 다른 작품에서도 이본 생성의 한 틀로 적용, 논의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나 내용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독자들의 논쟁이 개개 필사본을 통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진대방전>은 다분히 독자 중심의 소설³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사건 발단의 문제성에 끝났다가 태수의 구태의연한 훈계를 듣고 재미없다고 느낀 독자들이 대방의 개과 ‘그 후’⁴⁰⁾ 이야기를 확대하거나, 아예 허구적인 다른 이야기⁴¹⁾로 꾸며 나가려는 이본도 있다. <진대방전>의 경우 교훈성의 문제에 침잠되어 상대적으로 문학적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강한 교훈성에 거부감을 느낀 독자들의 의지가 오히려 다양한 이본을 만들어 내는 데 주요하게 작동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39) 조동일, 앞의 책, 143-153쪽 참조. 중국소설은 작가소설인 것과 달리, 일본 소설은 출판인소설이고, 한국소설은 독자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소설이 독자 중심의 소설이 된 데에는 여성 독자들의 독서와 필사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40) 대방 가족의 개과 이후의 이야기로는 대방의 관직 생활, 대방 어머니의 죽음과 상례, 태수의 죽음과 상례, 양씨의 잉태와 출산, 자녀들의 입신, 대방 부부의 죽음 등이 있는데, 이본에 따라 이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41) <김동욱 소장 16장본>과 같은 경우가 그 예이다. 여기에는 봉용이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봉용은 다른 이본의 태수 역할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인물의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차이를 시도한다. 봉용은 암행어사로서 대방의 불효를 듣고 대방의 집에 숨어들어가 지켜보게 된다. 이 이본은 후반부가 낙질이어서 작품 전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문학적 형상화를 염두에 둔 적극적 개작을 짐작하게 하는 이본이라 볼 수 있다. 송성욱, 앞의 논문, 447-448쪽 참조.

IV. 맺음말

윤리적 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 중 ‘효’라는 개념 역시 사회 변동이나 가족 제도의 변화에 편승하여 그 의미가 변화되기도 하고, 또는 관념적·허위적 이데올로기의 강요에 의해 변질되기도 한다. <진대방전>은 전체적으로는 무너지가는 ‘효’라는 순정의 이념을 일으켜 세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강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어 관심을 끄는 작품이다.

본고는 현전하는 <진대방전> 이본의 분량을 미루어 보아 <진대방전>이 당시 상당히 많은 독자를 확보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작품에 나타나는 이념과 현실의 거리를 확인하면서 그 간극에서 오는 긴장감이 독자를 끌어들이는 점, 교훈성으로 무장된 태수 훈계 대목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그토록 많은 이본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진대방전>은 그 이본이 113종으로 매우 다양한데, 어느 정도 교훈적 의도로 독자가 권장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많은 독자들이 교훈적 목소리를 기대하며 소설을 읽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설이 가지는 효용적 가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선 후기에 이르면 소설은 이미 수신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진대방전>은 줄거리를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는데, 사건의 발단 부분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그려진다. 중세적 이념에 충실하려는 어머니와, 그 이념이 요구하는 인간상하기를 거부하고 독립적이고자 하는 아들 부부, 이들의 팽팽한 대결 양상에서 어머니의 사실상 패배는 아들과 며느리의 불효로 표현된다.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들 부부와 똑같은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었던 어머니의 내면적 갈등은 어머니 스스로 그 권위를 잃게 만들었고 대결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게 하였다. 현실에 발붙인 구성원 각자의 욕망과, 현실 논리

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념의 혼재 속에 가족의 균열은 어쩌면 불가피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효’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런 문제는 더 자주 불거지고, 오히려 제도와 형식은 지나치게 강요된다. <진대방전>에 더러 합철되는 <이해룡전>은 이념의 무게가 일상인들에게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가혹하게 다가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효’에 충실한 주인공들이 결과적으로 그에 응당한 보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과연 현실적 독자들이 그 이야기에 순수하게 공감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진대방전>의 많은 이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건의 발단 부분에 드러난 <진대방전> 당대의 이념과 현실의 괴리는 분명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작품 분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지루하게 전개되는, 그리고 독자들에게 재미없게 여겨졌던 태수의 훈계 대목이 어떤 방식으로 이본 생성에 기능하는지 살펴보았다. 태수 훈계 대목은 고사를 제시하여 구성원 각자를 훈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독자 개입의 통로가 다양하고 그 결과 신축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이유로 경직되고 폐쇄적인 훈계 대목이 적극적인 독자들에게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즉 비판의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독자들의 논쟁이 개개 필사본을 통해 이루어지는 셈이다. <진대방전>은 비록 단순하고 교훈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이나 형식면 모두가 다양한 이본 생성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소설사적으로 <진대방전>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초기에는 표면적 의도에 국한되어 ‘윤리소설’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았지만 조선시대 소설 대부분이 윤리적 의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규정은 다소 어폐가 있는 듯하다. ‘송사소설’로 보는 것 역시 유의미한 작업이긴 하지만 <진대방전>은 조선시대 송사의 현실태를 보여준다고보다는 목민관이 꿈꾸는 이상

적인 송사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진대방전>이 당대 가정의 세태를 다루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세태소설’이라는 개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세태소설들이 풍자적 수법으로 상층의 경화된 관념을 부정하거나 세태 묘사를 통해 사회의식을 질게 드러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진대방전>은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대방전>은 윤리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돌출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들추어내고 있다. 다채로운 성격의 소설들이 혼재하는 소설사적 맥락 속에서 어느 하나의 특성으로 규정짓기 쉽지 않은 작품이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소설이 다양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형식으로 이 작품의 실상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대방전>에서 제기되고 있는 갈등이나 문제의식들은 현재, 우리 시대의 가족 문제에 비추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작품의 현대적 읽기도 가능하리라고 보며, 그렇기 때문에 <진대방전>은 여전히 문제적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의는 다양한 이본에 대한 전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 이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 의식 지향에 따른 이본군의 분류도 가능하리라 본다. 분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단부의 해석에 관심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의미 부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변화의 단서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해석이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나아가 소설의 도덕적 책무와 관련하여 당시 향유층의 정서에 대한 보다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주제어 : <진대방전 *Jindaebangjeon*>, 이념(ideology), 욕망(desire), 가족(family), 현실(reality), 훈계(instruction), 이본(version)

참고 문헌

- 김광순 편, 『김광순소장 필사본한국고소설전집』 32, 46, 경인문화사, 1994.
- 김동욱 편, 『경인 고소설판각본전집』 3.
- 박종수 편, 『나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62, 보경문화사, 1991.
- 영남대본 <진대방전>.
- 월촌문헌연구소 편,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43, 오성사, 1986.
-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편,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4, 은하출판사, 1983.
- <정보연간독> 하.
- 김경미, 『소설의 매혹』, 월인, 2003.
-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
- 김석희, 「조선후기 향촌사족층 여성의 삶과 시집살이 서사」,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 김일렬, 『고전소설신론』, 새문사, 1991.
-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 송성욱, 「진대방전 연구」, 『공사논문집』 35, 공군사관학교, 1994.
- 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 이태문, 「윤리의식의 중세적 형상화-〈진대방전〉을 중심으로」, 『연세학술논집』 27, 1995.
- 이현홍, 『한국송사소설연구』, 삼지원, 1997.
- 이현국, 「〈진대방전〉의 전반적 성격」, 『연거재신동익박사 정년기념논총 국어국문학연구』, 1995.
-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8.
-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78.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9.

-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지식산업사, 2001.
- 조재현, 「<진대방전>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1998.
- 조혜란, 「경관 방각본 소설의 특성」,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4.
-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 조희웅, 『고전소설 이분목록』, 집문당, 1999.
-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Abstract>

The Status of Ideologies in *Jindaebangjeon* and the Motives of Creating Revised Versions

Park, Eun-Jung

Jindaebangjeon, a instructive story, has many different versions. This is quite unusual. Mostly moral lesson stories are not modified. I started the study from this point and intended to examine the reasons. Daebang family's problems result from the generation gap between Daebang's mother, who wants to stick to the medieval ideologies, and Daebang couple, who pursue practical and material desires. On the top of the conflicts, the mother, who is not free from both values, suffers from her own inner conflicts at the same time. As these problems in reality aggravate, the voices for ideologies get amplified. However, the ideologies are so unrealistic and severe that ordinary people who belong to reality cannot follow, and thus they ring hollow. That is to say, *Jindaebangjeon*, which says outwardly that the falling value, Hyo(孝, filial piety), should be reestablished, attracted the readers of the day because it reflected the contradictory reality, in which Hyo was not implemented despite the stress of its importance. Especially, a governor's instruction part, which is just boring quotation of old stories with nothing new, opens the possibility to create different versions. In other words, the unique method of 'individual lessons through old stories' allows readers the freedom of interpretation. That is, when they transcribed the original version, the readers who did not fully agree with it

modified the contents and numbers of quoted stories in it. In modern society, *Jindaebangjeon* is still of worth because the problems and conflicts it casts are not largely different from today's family.

박은정

경북 경산시 대동 214번지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화 : 818-0673, 018-527-4483

e-mail : blueye4483@hanmail.net

이 논문은	2005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12월	30일	간행함